



연탄가스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1. 연탄가스 중독원인

연탄가스 중독은 연탄이 탈 때 나오는 가스중에 일산화탄소라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가스를 맡음으로써 혈액내의 혈색소와 결합하여 몸안의 산소공급을 방해함으로써 생긴다. 일산화탄소가 혈색소와 결합하고자 하는 힘(친화력)은 산소보다 200 배나 강하여 공기중에 조금만(0.01%) 있어도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게 한다.

2. 연탄가스 중독의 증상

연탄가스 중독은 한차레에 많은 량의 가스를 마셨을 때(급성중독)와 적은 량의 가스를 계속적 또는 가끔씩 오랜기간 마셨을 때(만성중독) 발생한다.

그 증상으로

○ 급성중독의 일반적 증상은 몸에 열이 나거나 숨이차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구역질이 난다. 심한 증상은 토하고 땀을 많이 흘리며 입에 거품이나 침을 내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떨면서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사망에 이르게도 된다.

○ 만성중독의 일반적 증상은 대개 급성의 경우와 비슷하며 귀울림이 있거나 숨이차거나 소화도 잘 안되며 건망증이 생긴다. 심한 경우 정신이상 증세와 갱년기 우울증 그리고 심장의 이상 비태 증세를 나타낸다.

3. 연탄가스 중독예방 방법

○ 우선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

드느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궁이 등에 신문지, 나무, 가스발견탄 등으로 연기를 피워 방안에 연기가 새어나오는가를 본다.

○ 방구들, 벽틈, 문틈등 가스가 스며들 곳을 찾아 완전히 막는다.

○ 연탄아궁이, 난로등에 불이 잘 피고 연기가 연통으로 잘 빠지게 한다.

○ 저녁에 연탄을 갈 때는 항상 잠들기 2~3 시간 전에 갈도록 한다.

○ 잠들기 전에 창문을 5~10분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 젖은 연탄은 잘 타지 않아서 가스 발생이 심하므로 1주이상 건조시킨후 사용토록 한다.

○ 가스 배출기나 가스 경보기등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가스 위험에 주의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한다.

4. 환자발견시 조치

○ 우선 숨지않게 하면서 환자를 옮기는등 신선한 공기를 맡도록 하며 단추·혀대등 조인 부분을 풀어 느슨하게 하여 숨쉬기가 편하게 하면서,

○ 가능한 빨리 고압산소치료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택시,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이용등으로)

○ 기타 응급처치

· 토하는 경우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고 깨끗이 닦는다.

· 의식이 있을 때는 앞의 조치외에 심호흡을 5분정도 시켜주고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의식을 잃었을 때는 앞의 조치를 취하면서 호흡장에 또는 호흡정지시는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가능한 빨리 고압산소치료를 받도록 한다.

생활과학

• 연탄가스 주의

아궁이에 연탄불을 새로 지필 때는 지피기 전에 반드시 연탄가스가 새는지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넣고 화덕 뚜껑을 닫고 방바닥에서 연기가 스며나오는 지를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만약 새는 틈을 알았으면 창호지에 풀을 흠뻑 적셔서 틈새에 꼭꼭 밀어 넣으면 세멘트물탈보다 효과적이다.

줄뭉 끝에 가스배출기를 달아 작동시키면 불이 잘 피어서 방도 따뜻하고 연탄가스도 잘 배출시키므로 위험이 줄어든다.

문이 꼭 닫히지 않아 그곳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든다면 문을 틀레에 스펀지를 대고 압착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연탄가스도 막고 방안의 보온도 된다.

